

어린이예술단 아름다운 선율 선사

세계새만금챔버리 성공기원 · 송년콘서트 '선물' 무대 펼쳐

17일 익산예술의전당
19일 전주소리문화의전당

2023년 새만금 세계챔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어린이들의 감동적 무대가 펼쳐진다.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은 17일과 19일 저녁 7시 이틀 간 익산예술의전당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송년콘서트 '선물'을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는 어린이예술단이 크

리스마스와 송년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음악들을 아낌없이 선보이는 기회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챔버리대회 유치를 자축하고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악관현악단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챔버리 대회가 열리는 비전의 땅 새만금 너른 '판'에서 꿈과 희망이 나뉘시길 기대하며 첫 무대로 '관놀이'를 선택했다. 이어 태평소를 바탕으로 1960년대

에 새롭게 만든 악기 장재남과의 협주곡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열풍'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감성의 떨림을 선사한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타악기의 모듬복 협주곡 'TA'는 큰 울림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상을 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향악단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서곡과 모음곡들을 차례로 들려주며 JSM뮤지컬 아카데미 합창과의 협연을 통해 '어울림'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사물놀이패 '동남풍'과의 신모듬, 또 이국의 정서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미스 사이공'은 어린이교향악단의 기량이 세계적임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김인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장은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챔버리대회를 향한 도민들의 성원과 기대가 어린이 단원들의 음악으로 더욱 높아질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연 '선물'이 도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6세이상 관람가로 공연당일 5시부터 현장에서 무료 관람권을 선착순으로 교부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전국 공무원노조 전북도청지부는 13일 도청 3층 자치행정 국장실에서 임금협약 체결을 하고 있다.

도 공무원 내년 기본급 3% 인상

전북도-공무원노조, 임금협약 체결... 정근수당도 신설

전북도와 전국 공무원노조 전북도청지부는 13일 도청 3층 자치행정 국장실에서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보다 기본급 3%인상과 정근수당을 신설했다. 노조대표측은 "매년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보다도 뒤처지는 임금협약이 체결됐다"며,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노조 측이 양보해야 하는 논리를 내세워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수준이 오르지만 납득할 만한 임금 반영이 안됐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노조 측은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정을 위해 이번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노조 측 교섭위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며 공무원들과의 보수를 비교해도 60%수준도 되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희생을 너무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성토했다. 사측대표측은 "대체적인 노조 측의 배려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시군보다도가 임금이 뒤처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내년엔 도가 노조 측의 협상을 꼼꼼히 챙겨 올 해보다 발전적인 임금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불균형의 골 깊게 만드는 오류 범하지 않길”

도의회, 낙후지역 배려 재정분권 추진 대정부 건의 지방·수도권간 재정격차 완화대책 마련 촉구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장치를 처음부터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건의안을 통해 제기됐다. 13일 이학수(정읍2·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은 현재 정부가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정분권 로드맵이 지방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배분장치와 교부세율 인상 등의 균형발전방안을 확고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의 세부 주문사항을 보면 먼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의 수혜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될 우려가 매우 커 비수도권지역, 특히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재원배분장치를 정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최소 22%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교부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자체세입은 50%이하로 대폭 하락해 중앙재



정 의존도는 40%를 넘을 정도로 높아졌다. 반면에 기초 노령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팽창에 따른 지자체 매칭부담으로 재정경직성은 심화됐다. 이렇듯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 비전을 제시한 문재인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균형기능 강화, 자율성·책임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권로드맵을 지난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학수의원이 건의

안을 발의한 배경은 정부 재정분권 로드맵이 단순히 지방소비세/소득세 등을 확대한다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은 더욱 심화돼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실질살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각 지방정부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정부 재정분권계획안이 지역불균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건의안 발의 이유를 덧붙였다.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청와대의 국회,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안부와 기재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해야”

이성일 도의원 대표발의... 처우개선 등 시급 주장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환경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국민의당·군산4·사진)이 대표발의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건의안은 이장·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

된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처우개선이 소홀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개선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북의 이장·통장 수는 7,953명(이장5,181명, 통장2,772명)으로 이장당 1인당 약 99세대를 담당하



고 있으며, 일부 지역편중을 감안하면 전주, 군산, 익산은 관리세대수가 200세대를 넘는 곳도 있다. 그러나, 통장들이 받는 수당 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2만원, 회의수당 월4만원(2회,2만원씩), 상여금(200%) 연40만원이 전부이다. 이장·통장 수당은 1963년에 월 5

백원으로 시작해 총 8회에 걸쳐 인상되어, 2004년 20만원 확정된 후 13년 동안 단 한번의 인상이 없었다. 이성일 의원은 "13년간 요지부동인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만,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대한 활동보상금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보험지원 확대와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도, 범죄無 안전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역안전지수 발표 결과, 전북도 안전수준은 최하발표 당시(2015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17년 지역안전지수(16년 통계 기준)'를 보면 범죄 1등급, 자연재해·안전사고 분야 2등급, 교통사고 자살 분야는 각각 3등급, 화재·감염병 분야는 각각 4등급을 받았다. 지자체의 인구 만 명당 5대 범죄(절

도·살인·강도·폭력·강간) 발생건수를 기반으로 나타내는 범죄 분야의 경우, 2015~16년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받아 올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 중 가장 살기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가 2015년 97.7건에서 지난해 82.5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15.2건 감소) 범죄분야의 안전수준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진성 기자